

# 전북연구원 보도자료

아름다운 산하 응비하는  
생명의 삶터, 천년 전북!

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  
전북연구원(T.063-280-7100/F. 286-9206)  
<http://www.jthink.kr>

- 문의 : 연구본부장 김진석 선임연구위원  
(063-280-7111)
- 담당자 :전북학연구센터 박정민 부연구위원  
(063-280-7171, 010-9938-6018)

보도시점 : 2020년 2월 3일(월)부터

## 한국 민주주의의 뿌리 전라북도의 4·19혁명을 알리자

- 2020년은 4·19혁명 60주년으로 각 지역에서 대대적 행사 준비
- 전북은 대학 최초 시위가 있었던 전북대 4·4의거가 일어난 곳
- 4·19혁명 혁명에서 전라북도가 차지하는 위상을 밝혀 동학부터 촛불까지 이어지는 민주주의의 뿌리라는 점 강조

- 4·19혁명 60주년인 올해 전북대에서 열린 전국 대학 최초 시위, 전주와 익산의 시위 등 민주화를 향한 전북의 헌신과 노력을 적극 조명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.
- 조선 말 동학농민혁명에서부터 최근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민주주의를 향한 전북과 도민의 중단 없는 역할을 조명해 ‘민주주의의 뿌리’ 전라북도라는 정체성을 입증할 수 있다는 것이다.
- 전북연구원(원장 김선기)은 3일 『한국 민주주의의 뿌리 전라북도-청년 4·19의 시작』이라는 이슈브리핑(215호)을 통해 전라북도의 4·19혁명을 살펴보고 대응 방향을 제안했다.
- 박정민 박사(연구책임)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흐름에서 전라북도가 동학부터 촛불까지 이어지는 핵심 역할을 수행했지만, 4·19혁명과 관련된 내용은 크게 알려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.

- 4·19혁명의 도화선이 된 김주열 열사가 남원 출신이라는 사실은 널리 알려졌지만, 1960년 4월 4일 전북대에서 전국 대학 가운데 최초의 시위가 열렸고, 주축 세력이 4월 20일의 전주·익산 시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사실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.
- 따라서 전북대 4·4의거를 4·19혁명의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도록 각 계각층에서 노력하고, 당시의 활동을 재조명해 4·19혁명에서 전라북도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음을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.
- 4·19혁명 과정에서 전북의 역할 재조명은 전북이 동학농민혁명(1894)-3·1운동(1919)-4·19혁명(1960)-5·18민주화운동(1980)-6월민주항쟁(1987)-촛불혁명(2016-2017)으로 계승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임을 입증한다는 것이다.
- 박정민 박사는 4·19혁명에서 전라북도의 역할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추진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.
- 첫째, 국가기념일 제정을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, 법률을 개정하여 국가기념일로 제정하도록 여러 분야에서 노력해야 한다.
- 둘째, 4·19혁명 관련 대학 최초 시위인 전북대 4·4의거의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하여 60주년 기념식을 개최해 도내외의 관심을 환기해야 한다.
- 셋째,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전북대 4·4의거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전라북도가 4·19혁명 당시 중요한 지역이었음을 알리는 여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.
- 박정민 박사는 “궁극적으로 ‘민주주의의 뿌리 전라북도’ 라는

브랜드 형성을 통해 도민의 자존감을 제고해야 한다” 며 “4·19 혁명에서 전라북도의 역할을 조명하면 그 연원인 동학농민혁명을 세계 4대 민주혁명 중 하나로 제시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” 고 주장했다.